

# 순천만 갯벌, 매년 이산화탄소 6,900톤 흡수

### 그린카본 탄소흡수 속도의 50배 역간척 갯벌 복원·녹색공간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시책 추진

순천시는 30일 “지난해 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순천만의 갯벌을 통해 매년 약 6,900톤의 이산화탄소가 흡수, 저장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승용차 약 2,900여 대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 준비한 순천만국가정원과 오천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 경관정원 등 약 160만 평의 정원을 통해 흡수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연간 1만606톤으로, 자동차 약 4,420대가 내뿜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나무나 숲, 정원의 화초류, 잔디 등 이 모든 육상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그린카본이라고 한다. 바다, 갯벌, 염습지 등 해양생태계가



순천만 갯벌

/순천시 제공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하는데 블루카본은 그린카본보다 탄소흡수 속도가 50배나 빠르며 탄소 저장 능력도 훨씬 높다. 지구 산소의 20%를 만들어내는 아마존 열대우림보다 바다와 해양 습지의 탄소흡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전국 11개 지역에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2년까지 폐염전, 폐양식장 등 약 1.5㎢를 복

원했다고 한다. 이 중 순천만의 역간척 사업을 통해 약 0.5㎢의 갯벌을 복원했으며 순천시는 2027년까지 약 2.1㎢의 갯벌 복원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시는 2021년 시행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갯벌 복원사업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가

필요 불가결하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갯벌 복원 면적 1.5㎢를 2030년까지 10㎢까지 늘리겠다고 한 만큼 순천시가 선제적으로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갯벌 블루카본의 잠재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연안습지 순천만은 순천시가 보유한 경쟁력 있는 해양자원으로 앞으로 해양정원 조성, 역간척을 통한 갯벌 복원으로 탄소흡수원 기반을 확대하고 순천만국가정원을 도심 곳곳으로 연결 확장을 위한 도시의 나아가갈 방향을 보여 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순천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친환경 농축수산 인프라 조성 ▲탄소중립 생태사회 조성 등 분야별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박경식 기자

### 구례300리 벚꽃축제 오늘부터 3일간 개최

구례군은 기존 섬진강변 벚꽃축제를 군 단위 축제로 확대해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2023 구례300리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개막식은 31일 오후 6시에 진행된다.

‘벚꽃300리 구례를 걷다’를 주제로 축제의 주무대가 되는 서시천체육공원에서 개막식, 축하공연, 버스킹, 스탬프투어,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보조무대인 문척면 오섬정원 주차장에서는 섬진강변 노래자랑 등 방문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특히, 문척면 월평교에서 오봉정사 사이 2.5km 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명패리는 의자, 버스킹 공연 등의 이벤트를 열어 방문객이 여유롭게 벚꽃과 섬진강변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장석우 축제추진위원장은 “굽이굽이 어여쁜 구례300리 벚꽃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많은 상춘객이 불편함 없이 300리 벚꽃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교통 대책 및 편의 시설 마련 등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손석봉 기자

### 광양관광협의회 총회 개최 관광브랜딩 민관협업 추진

광양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귀식 광양시관광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광양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이귀식 협의회장과 정인화 광양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사무감사 결과 보고,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 결산 및 예산 승인 순으로 이어졌다.

협의회는 관광관광 브랜딩을 목표로 ‘함께 그린(GREEN) 광양 쉼터’, 관광·서비스업 역량 강화 아카데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기획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제22회 광양매화축제에서 협의회가 주관한 ‘경건 쉼터 in 매화축제’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ESG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는 4월에는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관광마인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총 4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외식업체 위생 식문화 구축 ▲감성 자극 포토존 설치 등 다각적인 사업을 펼쳐나간 다. /우성진 기자

## 농주농협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준공

### 농가 소득증대·지역 활성화 기대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화순 농주농협(조합장 노중진)과 함께 농주면 학포리에 대지 1,677평, 건물 619평 규모의 ‘도농상생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주농협의 숙원사업인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2020년 부지 확보 후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총 85억원을 투자했다.

로컬푸드 참여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농주농협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의 특별한 의미는 도시농협인 서광주농협에서 30억을 투자한,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이 서로 상생하는 공동투자 사업으로 광주·전남에서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향후 양 농협은 출하농산물 교류전, 도농상생 PB상품개발, 농업인 소비자 유통현장 체험 및 견학장소, 도시주부대상 요리교실운영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로컬푸드 부대시설로 조성해 놓은 유



화순 농주농협이 지난 29일 화순군 농주면 학포리에 도농상생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리온실은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판매장과 더불어 작은 영화관, 음악회, 지역예술인 작품 전시회, 농업인 쉼터 등으로 다양한 게 운영하며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 상생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노중진 조합장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지역농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만

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종택 본부장은 “농주농협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전남 최초 도농상생 업무협약으로 만들어진 뜻깊은 사업이다”며 “많은 고객들이 이곳을 찾아 안전한 농산물 구매도 하고, 문화공간을 통해 힐링도 할 수 있는 복합 콘텐츠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 곡성꿈놀자학교 프로그램 시작 유아·초등생 대상 숲·생태교육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최근 곡성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곡성꿈놀자학교 숲·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곡성꿈놀자학교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체원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숲·생태 놀이’와 관내 8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교과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곡성꿈놀자학교는 작년 12월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사전설명하고, 지난 2월 곡성교육포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인 ‘꿈놀자 트리 클라이밍’을 저학년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섬진강 침실습지에서 놀면서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자연과 놀자’ 프로그램을 추가해 새로운 체함을 제공한다.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아와 초등학생들에게 곡성의 숲과 생태교육장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해 고품질의 생태교육문화를 조성하고 ‘숲과 생태교육 도시 곡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곡성=한정길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두원면 지사협, 사랑의 쌀 기탁 잇따라

고흥군 두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류용석)는 두원농협 조합장(신선식) 취임식 쌀 화환에 이어, 면 체육회장(류철중) 및 의용소방대장(신제철)으로부터 총 650만 원 상당의 백미 218포를 최근 기탁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기탁받은 물품은 최근 두원농협 조합장 취임식 때 받은 쌀 화환(10kg

백미, 68포)으로 신선식 조합장은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류철중 체육회장(10kg 백미, 100포)과 신제철 의용소방대장(10kg 백미, 50포)은 직접 경작한 쌀을 기부하면서 관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고 기탁의 뜻을 전했다. /고흥=진중연 기자



### 여수 돌산연합청년회, 취약계층에 백미 전달

여수 돌산연합청년회(회장 류경석)가 최근 돌산읍 우두출장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돌산연합청년회 이·취임식 행사 자리에서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백미 50포를 기탁했다.

이날 전달 받은 백미는 돌산읍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

달될 예정이다. 류경석 신임 회장은 “에너지 고물가, 고금리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희망을 드리고자 백미를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 순천-국제로타리클럽, 치매 예방 맞손

순천시가 최근 국제로타리3610지구 순천로타리클럽과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정원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로타리3610지구 순천로타리클럽은 치매인지기능향상 환경조성을 위해 인지재활훈련 그룹형 물품 2세트 8,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으며 1년간 강사

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제로타리재단 글로벌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재대 국제로타리3610지구 총재는 “고령화로 치매 예방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순천시치매안심센터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